웹툰으로 시왕도 알려준다고요? '신과 함께' 만나는 지옥의 왕

호림박물관, 웹툰 '신과 함께'와 시왕도 특별展

저승 세계를 관장하는 10대 시왕들의 재판 광경과 지옥 중생들을 묘사한 불교회화 시왕도(十王圖)가 불교 웹툰 '신과 함께'를 만나 더 쉬워진다.

호림박물관은 주호민 작가의 인기 웹툰 '신과 함께'와 시왕도의 만남 특별전을 9월 30일까지 신사분관 M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호림박물관이 소장한 조선 후기 시왕도(1764년)에 대한 설명을 웹툰 '신과 함께'를 통해 쉽게 전달, 관람객들이 보다 친근하게 불교회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호림박물관은 "불교미술은 종교미술 특유의 알레고리로 인해 불교를 깊이 이해해야 비로소 즐길 수 있는 예술이란 인식이 강하다. 이에 한국미의 근간으로 작용했던 불교미술을 보다 가깝게 여길 수 있도록 이번 특별전을 마련했다"면서 "한국 불교회화의 중요한 장르이자 사후세계에 대한 염원이 담긴 시왕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웹툰으로 설명하는 전시기법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주호민 작가의 웹툰 '신과 함께'는 불교의 사후세계를 만화로 재밌게 표현해

주호민 작가 인기 웹툰으로
불교회화 시왕도 쉽게 설명

시왕도, 호림博 소장 18세기 작품
10폭 희귀해 역사적 가치 뛰어나

불교 사후세계 표현한 '신과 함께'
하정우·차태현 주연 영화로 제작中

대중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불교의 이승과 저승, 그리고 한국의 토속신앙을 만화에 적절히 녹여낸 작품이다. '신과 함께'는 영화로도 제작돼 올 여름 개봉 예정이다. 배우 하정우, 차태현, 주지훈, 김향기 등이 주연을 맡아 이미 장안의 화제다.

웹툰 '신과 함께'로 설명하는 시왕도는 불자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 보다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품과 함께 곳곳에 배치된 웹툰 장면들이 시선을 사로잡으면서도 이해하기 쉬워 특히 어린이들이 불교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다.

〈불설예수시왕생칠경〉에 의하면 인간은 죽으면 명부(冥府: 인간이 죽어서 심판받는 곳)로 가게 된다. 도중에 차례로 10명의 시왕을 만나 생전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한 재판을 받는다. 이를 작품으로 그린 것을 시왕도(十王圖)라고 한다. 현재 전 세계 약 300여 축의 시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통일신라 초기에 처음 시왕도가 전해져 10~11세기 초 시왕신앙이 성행했다. 현재 조선전기 시왕도는 일본과 독일 등에 소장돼 있으며, 우리나라엔 18~20세기 제작된 작품들이 남아있다.

시왕도는 10명의 왕을 몇 폭으로 나눠 그렸는가에 따라 10폭 · 6폭 · 4폭 · 2폭 형식 등으로 분류된다. 그 중에서도 호림박물관의 시왕도는 10명의 왕을 각 1폭씩 나눠 그린 1폭1왕식으로, 18세기 제작됐다. 10폭 시왕도가 모두 전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19세기 후 제작됐기 때문에 호림박물관의 시왕도는 조선후기 불교회화 양상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단서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호림박물관은 3월 21일~9월 30일 신사분관서 고려시대 철화청자를 주제로 '철, 검은 꽃으로 피어나다' 특별전도 개최한다. 호림박물관 소장 고려시대 철화정자 220여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를 통해 매병, 대접, 잔, 유병, 주자 등 다양한 형태와 무늬를 갖춘 철화청자의 예술적 미학을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지장시왕도', 1736-1795년, 130.0×118.0cm, 사진제공=호림박물관





웹툰 '신과 함께'(주호민 作) 속 지장보살과 시왕 소개

자연에서 찾은 내면, 사유의 길로 확장하다

갤러리시:작, 4월 9일까지 이종송 · 정상곤 작가 2인展

이종송 · 정상곤 작가가 마주한 자연(自然)은 어떤 모습일까. 그 자연 속에서 두 작가는 무엇을 다르게, 또는 같게 느꼈을까.

갤러리시:작은 4월 9일까지(월요일 휴관) 이종송 · 정상곤 작가의 'Duo, 만들다, 발견하다'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두 작가가 자연을 대상으로 느낀 감정을 구현한 회화 및 판화 작품 50여점을 소개한다.

두 작가는 자연이란 물리적 공간을 각자의 시선으로 관찰해, 각기 다른 내적 경험을 통해 작품에 녹였다. 다르면서도 같은 작품 속 사유(思惟)가 관람객들의 다양한 감흥을 유발시킬 것으로 주목된다.

먼저 자연 풍경 속 무한한 변화와 이질적 공간을 독보적인 흙벽화 기법으로 표현하는 이종송 작가는 이번 전시서 흙과 안료에서 우러나오는 색을 활용, 보다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자연을 묘사한다. 이 작가는 "추상적인 풍경에서 느낀 내면의 감정을 단순한 색과 면, 점으로 표현했다. '숲의 춤(Dance of the Forest)'이란 제목에 나타나듯 생명이 움직이는 듯한 숲의 모습을 그렸다"며 "감상자에 따라 숲인 듯, 나무인 듯, 사람인 듯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정상곤 작가는 특정한 장소의 재현보단 개인의 고민과 경험들을 시각화하기 위해 거친 묘사를 반복해 유적이고 몽환적인 풍경을 담아냈다. 이야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표현보단 생략되고 왜곡된 형태를 유지하며 디지털 방식의 회화를 표현해냈다. 작가와의 대화는 31일 오후 7시 진행된다.



이종송 Dance of the Forest, 흙벽화기법에 천연안료, 116x45.5cm, 2017



정상곤 Skin deep, 41x53cm, oil on canvas, 2015

이종송 작가는 서울대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해 대한민국 미술대전서 특선 및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건국대 회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상곤 교수는 서울대 서양화과를 졸업해 동 대학원을 졸업, 현재 동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 베를린, 동경, 후쿠오카, 에스토니아 탈린 등에서 판화와 페인팅으로 총 33회의 개인전을 연 바 있다. 박아름 기자

佛音으로 봉축 장엄 '찬불가 열창대회'

좋은벗풍경소리 · BTN 공동주최 5월 13일 예선

흥겨운 찬불가 대잔치 '찬불가 열창대회'가 올해도 찾아온다.

좋은벗풍경소리와 BTN불교TV는 공동주최로 '제3회 찬불가 열창대회'를 개최한다. 5월 13일 오후 2시 예선에 이어 26일 오후 7시 본선이 진행된다. 두 차례 모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열린다. 출석경연을 원칙으로 하나, 예선의 경우 지방 및 도서벽지 참가자들에 한해 동영상 신청접수도 가능하다. 동영상 접수는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찬불가를 사랑하는 모든 불자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분야는 독창과 8인 이하 중창이다.

참가곡은 찬불가 및 찬불가요로, 반주는 MR 혹은 출연자가 동반해 가능하다.

시상 및 상금은 △대상 200만원(1팀) △최우수상 100만원(1팀) △우수상 50만원(2팀) △인기상 20만원(2팀) △응원상 50만원(1팀)이다.



접수는 좋은벗풍경소리 홈페이지(www.budsori.or.kr) 또는 붓다콘서트 카페(cafe.naver.com/buddhaconcert)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우편 또는 팩스(02-723-9841), 이메일(budsori@naver.com)로 하면 된다. 접수마감 4월 28일 오후 6시까지. (02)723-9836

박아름 기자



위패몰.com

원로대덕스님들께 삼가 문안인사 올립니다.

사찰에서 살다보니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쓰다보니 주위에서 나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다보니 이렇게 지면을 통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쓰기 좋고 보기 좋으며 법당내의 격을 높이고자 감히 디자인 하고 고안하였습니다.

조상의 왕생극락을 불전에 기원하는 후손들의 정성을 섭인(攝引)하여 법당을 여법하게 장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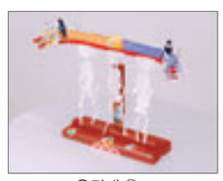
사문(沙門) 일허(一虛) 나무 관세음보살


2단 합동위패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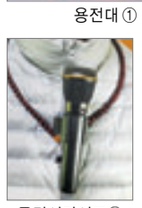

2단 합동위패 ②


3단 합동위패 ①


용전대 ①


용전대 ②


목걸이마이크 ①


목걸이마이크②


축원카드 보관함


소대위패①


소대위패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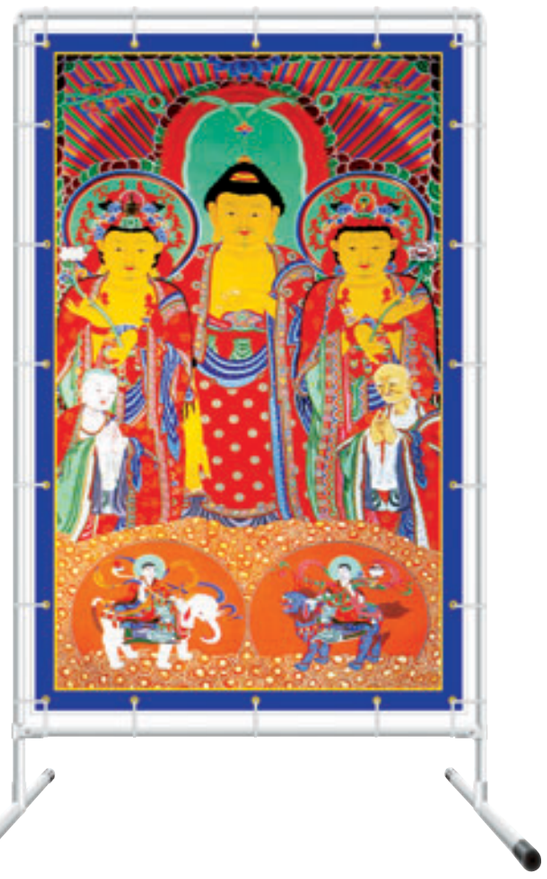
살펴보시고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산 서구 남부민동 93-1번지
☎051)244-2040

七寶寺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